

관리 인력 확충·재난예측 지도 제작

문화재청 2012년 신년계획...국보 등 597개소에 1000명 배치

문화재 현장관리 인력이 대폭 늘어나 국가 지정문화재의 재난예방 관리가 강화된다. 또, 문화재 훼손 요인 및 관리상태를 과학적인 지표로 분석 정리해 재난피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문화재 재난위험지도가 개발된다. 이 지도가 개발되면 재난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예방관리대책 마련으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월 12일 신년기자간담회와 2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가 지정문화재 재난예방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597개소에 1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국보·보물 등 중요문화재가 있는 121개소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362명 안전경비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게 된다.

안전 경비인력 배치사업은 2008년 순례문화재 이후 국보·보물 등 중요문화재를 대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했다. 문화재청은 방화관리 자격증 소지자, 문화재 안전경비 경력자, 문화재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 채용한다. 또, 산간오지나 폐사지 등과 같이 문화재 관리가 취약한 476개소에도 638명의 특별관리 인력을 배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재난피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문화재 재난위험지도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안전기준과는 "최근 홍수 태풍 화재 지진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무분별한 토지개발, 급격한 도시화 등 인위적 재난 유형과 범위가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사전 위험예측을 통한 예방관리방안 마련의 하나로 문화재 재난위험지도 개발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재난위험지도는 각종 재난정보와 문화재 관리상태, 속성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위험을 지수화해 개별

문화재 재난위험 정도와 관리상태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지도상에 시각화한 것으로, 계기별 재난예방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2015년까지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발생통계, 발생가능정보, 실시간 기상정보, 지형 및 산림환경, 문화재 관리상태 등을 분석한 재난위험지도 개발하고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문화재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탈리아는 1990년대 초반부터 문화재 재난위험지도 제작에 착수했다. 현재 지정문화재는 물론 문화재 수장시설(박물관, 미술관)까지도 각종 위험정보와 문화재 상태를 나타낸 문화재위험지도도 작성하여 문화재보호 및 재난예방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 중이다.

한편, 문화재청 2012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예비문화재 인증을 통해 미래에 가치 있는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보호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승이 단절돼 가는 무형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유적 재평가와 정비·활용 사업 등도 추진된다.

88올림픽 굴림쇠도 문화재로

김찬 문화재청장은 "올해부터 '(가칭)예비문화재' 인증제를 도입해, 만든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첨단 산업기술 분야나 각종 국제경기대회 우승 관련 스포츠 유물 중 미래에 가치가 있을 문화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8년 7월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박세리가 사용했던 골프 클럽,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사용한 굴림쇠,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붉은악마가 사용한 대형 태극기 등 국민적 주목을 받은 스포츠 유물도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예비문화재 인증 대상



서산 보원사지 전경. 문화재청은 폐사지에도 인력을 배치해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중요문화재 24시간 상시 인력배치 2015년까지 위험지수화한 지도 완성 중국의 무형문화재 선점 대응 위한 무형문화재 법률제정·지일 강화키로

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근·현대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자치단체별 기초조사도 실시한다.

무형문화재 육성 법률 제정 추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정에 따라 회원국인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체계 정비의 의견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이 자국의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을 통해 아리랑, 씨름, 농악무, 그네뛰기 및 널뛰기, 전통혼례 등을 중국 국가대표목록으로 발표하면서 무형유산유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행 무형문화재 지정체계를 정비하고 전승단절 위기 해소를 위한 전수교육 활성화 등을 포함한 무형문화재 보존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률은 문화재보

추기는 주장들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점차적으로 무르익는 깨달음을 가르쳤음을 강조했다.

임승택 교수는 "초기불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에 관한 경건된 태도들로부터 벗어나 필요가 있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과정을 걸치지 않더라도 깨달음이 접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Zen' 아닌 'Seon' 으로

장은화 씨, '선문화연구' 제11집서 주장

세계적으로 선(禪)은 일본식 발음 젠(ZEN)으로 알려져 있다. 스즈키 다이세츠(1870~1966)가 선의 일본식 발음 '젠'과 이를 불교와 합성시킨 '선불교(ZenBuddhism)'를 100여 년 전 서구에 소개한 것이 최초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몇몇 학자를 중심으로 한국선만 큼은 'ZEN'이 아닌 'Seon'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드물었다.

이런 가운데 장은화 씨(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최근 펴낸 '선문화연구' 제11집에서 기고논문 '한국불교용어의 로마자표기에 대하여'를 통해 'Zen'이 아닌 'Seon'으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끈다.

장 씨는 "대중적 인지도를 고려해 일본어 젠(Zen)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서양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중국선은 'Chan', 한국선은 'Son', 일본선은 젠(Zen), 미국선은 '아메리칸 젠(American Zen)'으로 확연히 구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은화 씨는 한국의 선을 Seon으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를 >선의 로마자표기는 Seon이라는 점과 >젠과 선의 함의가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의 선을 Zen으로 표기한다면 한글의 선 관련 용어는 '선사-젠지' '선승-젠승' '참선-산선' 등 일본 선의 용어로 표기해야 해서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선이 미국에서 'Zen'으로 표기된다면 젠이 일반화되지 않은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한국선은 젠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장은화 씨는 "선과 젠의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 젠으로 통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사회의 선은 스즈키 다이세츠에 의해 전파됐으나 전통 일본선이 아닌 불교 모더니즘적인 성향을 강화하고 개인의 영성체험에 치중하고 있는 점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장 씨는 "젠은 종교성이 배제되면서 크리스찬 젠(Christian Zen), 카톨릭 젠(Catholic Zen)이 되기도 한다"며 "종교성이 배제되고 정체성이 희박해지고 미국화한 젠에 한국선을 담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은화 씨는 간화선 표기도 한국·중국·일본선의 특징에 따라 구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씨는 "중국의 'Kanhua Chan'이나 일본의 'Kanna Zen'이 문헌 속의 선인데 비해 한국의 간화선(Ganhwaseon)은 800여 년 역사를 지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선



선을 소재로한 단편영화 포스터. 선을 'Zen'이라 표기하고 있을만큼 이미 일본식 표현이 세계화돼 있다.

선禪은 日(Zen)·中(Chan) 한국어로는 'Seon'이라 표기

한국불교 독창성 살리려면 영문표기부터 바로해야

통이다"라고 말했다.

장은화 씨는 "한국에서의 간화선은 간화와 선으로 분리하지 않고 한 단어로 표기했다는 점, 간화선이 단일한 선수행으로 긴 역사를 갖고 현재의 고유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문자 표기를 해야 한다"며 한국 간화선의 적절한 로마자 표기로 'Ganhwaseon'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 씨는 화두선 역시 'hwadu seon'으로 일본의 공안선(koan Zen)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문화연구> 제11집에는 선학원 설립 90주년을 기념해 2011년 '승가노후복지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2차 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 됐던 논문 4편이 게재됐다.

기획논문의 타이틀로 게재된 이들 논문은 >한국노인복지정책의 구조와 개선방안(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 >종교별 성직자 노후복지 비교 분석(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 >불교종단 교역자 수행생활 기초보장에 관한 고찰(이혜숙 동국대 외래교수) >승가 노후복지 운영의 사례검토(이용권 서호노인복지관장) 등이다.

또, 투고논문으로 >폐비자수대에 나타난 종교관의 재정립(최경자 동국대 외래교수) >선조·광해군시대 문인사대부의 불승과의 시적 교류(김상일 동국대 교수) >월암당 정대 대장사의 이사무예적 삶 연구(탄담 스님) 등이 게재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극단적 과정 없이도 깨달을 수 있어”

임승택 교수, 불교평론 논단서 강조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단이 열렸다.

불교평론(주한 홍사성)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소장 허우성)는 공동으로 1월 19일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

논단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한국불교계에 확산돼 있는 깨달음에 대한 오해를 부

“정월에 특히 필요한 물건입니다. 아직 장만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대 할인을 연장 합니다.”

一. '효사비결' 육임 종합 CD프로그램 **할인가격 300만원 / 교환 50만원** **정가 650만원**

육임 당면사 판단과 육임 일생사 판단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첫 화면 좌 우측에 배치하여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7번째 진화된 '효사비결' CD프로그램의 최종결정판입니다. 최근 이것으로 교환 또는 구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말에 대한 채출근거까지 달아 놓아 최고의 명품이 틀림없습니다.

참고 말씀 "육임 당면사 판단에서는 방편(전화)자의 내외 비밀 속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지적해 낼 수 있고, 귀신 부정 산소탈 침범여부가 명백하며, 해소방법 또한 백미입니다. 육임 일생사 운명판단 역시 방편(전화)자의 인생 전반 사항을 위 당면사와 함께 한 화면에 좌우로 배치하여 한눈에 보기에 끔 해 놓았을 뿐 아니라 '상대가 내 말을 신뢰하고 있는지', '고집이 있는지', '절제해야 할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대상인지', '장대에 대한 수법이 제의의식이 효과가 있는지'까지 떠 있습니다. 방편(전화)자가 물어오는 사항도 해당인의 떠벌로 '되고' '안되고'를 확정시켜 놓아 판단의 정확도를 보장시켰습니다. 믿고 써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二. '군자수첩' 육임전문 CD프로그램 **할인가격 80만원** **정가 103만원**

육임만의 정수를 뽑아 첫 화면에 배치 했습니다. 특히 정치인 경제인과의 상담이 많은 분들께서는 매우 긴요하게 쓰일 것이며 효과 역시 보장됩니다. 위 '효사비결'의 육임 핵심부분을 모았으므로 비교적 싸게 장만하여 크게 쓰실수 있습니다.

三. '육임 1년신수비결' 2011 증보판 **할인가격 20만원 / 교환 10만원** **정가 25만원**

각월별 길흉변수가 바깥일과 집안일로 구분되어 종전 것 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달의 길흉까지 밝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신수비결은 집안 각 식구의 기도 제목으로도 활용됩니다.

四. 평소 '효사비결' 육임 각 활용서' 들을 눈여겨 봐 오신것이 있으시면 주문하십시오. 30% 할인 가격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육임나라 주식회사 www.yukimnara.co.kr 한국육임학회 www.tatotemple.net 역망 www.cfi.kr

고복자 효사 배상

주문전화 02) 738-8680 / 8683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주) 서울특별시 중로구 인사동 7길 33 육임컨텐츠개발전문 육임나라 주식회사